

줄여라! 7 ... 늘려라! 41045

KIA 잔여경기 11경기... 홈서 SK·두산과 빅매치
누적 관중 95만8955명... 6연전 중 100만 달성 가능
우승까지 매직넘버 7... 팬들 “이왕이면 안방서 촉매”

T 타이거즈 전망대

잔여 경기 일정에 돌입하는 KIA 타이거즈가 '7'과 '41045' 지우기에 나선다.

19일부터 프로야구 잔여 경기 일정이 시작된다. 이미 '가을 잔치'의 꿈이 무산된 최하위 kt 위즈와 삼성 라이온즈, 한화 이글스를 제외한 7개 팀은 각기 다른 일정 속에 전쟁 같은 순위 싸움을 벌이게 된다.

올 시즌 비가 비켜가면서 '천연동'으로 통한 문학구장을 사용하는 SK 와이번스와 진짜 돔구장을 안방으로 하는 넥센 히어로즈와 가장 적은 5경기를 남겨두었고, 1위 KIA가 가장 많은 11경기를 소화해야 한다.

KIA는 새로운 한주 챔피언스필드에서 5경기를 소화한다. 19·20일 SK를 만난 뒤, 22일 두산 베어스와 '빅매치'를 벌인다. 23·24일에는 kt와 주말 2연전을 치른다.

KIA에 '-7'과 '-41045'라는 두 가지 목표가 놓여있다. 이는 우승을 확정하기 위한 매직 넘버 7과 타이거즈 사상 첫 100만 관중에 부족한 4만1045명이다.

일단 100만 관중의 카운트 다운이 먼저 끝난 것으로 보인다.

KIA는 17일 kt전까지 66경기에서 95만 8955명을 불러들이면서, 평균 관중 1만 4529명을 기록하고 있다. 평균관중으로 계산을 하면 앞으로 세 경기를 더 치르면 경이로운 100만 관중 기록이 달성된다. 잔

■ KBO리그 순위 (18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승률	게임차
1	KIA	133	81	1	51	0.614	0.0
2	두산	136	78	3	55	0.586	3.5
3	NC	137	75	2	60	0.556	7.5
4	롯데	138	75	2	61	0.551	8.0
5	SK	139	71	1	67	0.514	13.0
6	LG	132	65	3	64	0.504	14.5
7	넥센	139	68	2	69	0.496	15.5
8	한화	134	58	1	75	0.436	23.5
9	삼성	137	52	5	80	0.394	29.0
10	kt	135	47	0	88	0.348	35.5

여 경기 일정 중 최대 관심을 끄는 두산전이 100만 관중 달성 경기가 될 전망이다.

KIA는 100관중을 돌파하면 오는 26일 LG 트윈스를 상대로 한 2017시즌 홈 최종전에서 '100만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할 예정이다.

매직넘버 계산은 복잡하다. 정규시즌 우승 확률 100%인 80승에 선착은 했지만 역전 확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최상의 경우의 수를 대입하면 23일 kt전에서 삼페인을 터트릴 수 있다. 물론 쉽지 않은 경우의 수다. KIA가 앞으로 4경기를 모두 이겨야 하고, 23일 경기가 없는 두산이 19·20·22일 경기에서 모두 패를 기록해야 한다.

쉽지 않은 4연승과 3연패라 KIA의 우승 확정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휴일이자 KIA타이거즈와 KT위즈의 경기가 열린 17일. 광주기아-광주챔피언스필드를 찾은 시민들이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하지만 KIA와 팬들은 안방에서의 우승 잔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시즌 중반 은퇴를 결정하고 전력 분석원으로 변신한 김원섭의 마지막 무대를 위한 바람이기도 하다.

KIA는 팀의 'V10' 등에 기여한 김원섭의 은퇴 경기를 위해 '선수 김원섭'의 자리를 남겨두었다. 전반기 거점였던 기세에

비해 더더진 후반기 행보에 김원섭이 유니폼을 입고 챔피언스필드 그라운드에 설 수 있는 경기의 경우의 수가 줄어들었다. 김기태 감독은 지난 주말 경기장을 찾은 김원섭에게 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최근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고난의 시간을 이겨낸 임기영이 두 경기

연속 깔끔한 피칭으로 선발 복귀를 알렸고, 재활과 군복무를 끝내고 2군에서 실력을 쌓은 이민우도 프로 데뷔 경기에서 선발승을 신고하면서 선발전에 힘을 보탤다. 다시 꼭 채워진 선발진 뒤에는 상승세의 타격도 기다리고 있다.

이명기와 바나나디의 부상이 아쉽기는 하다. 발목을 다친 이명기는 복귀를 위해

속도를 올리는 중이고, 17일 경기 도중 허벅지 통증으로 병원에서 실려 갔던 바나나디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지만 당분간 관리가 필요하다.

타격 상승세의 김호영과 우익수로의 가능성을 보여준 최원준의 활약이 필요한, 긴장감 가득한 한 주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유소연 “꿈을 다 이룬 듯”

LPGA ‘안니카 메이저 어워드’ 수상... 메이저 최강자 입증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를 달리면서 ‘메이저대회 최강자’ 타이틀까지 획득한 유소연(27)이 “꿈을 다 이룬 느낌”이라며 감격스러워 했다.

유소연은 17일(한국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랭의 에비앙 리조트 골프클럽(파71·6396야드)에서 막을 내린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에비앙 챔피언십을 마치고 ‘안니카 메이저 어워드’ 수상을 확정짓고 이 같은 소감을 밝혔다.

골프여제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의 이름을 딴 안니카 메이저 어워드는 한 시즌에 열리는 5개의 메이저대회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낸 선수에게 주는 상이다. 각 메이저대회에서 10위 안에 든 선수들에게 차등 점수를 부여하고, 5개 대회 포인트를 합산해 수상자를 정한다.

유소연은 에비앙 챔피언십에서는 공동 40위에 그쳤지만, ANA 인스퍼레이션 우승과 US여자오픈 공동 3위의 성적을 토대로 총 78점을 획득해 이 상을 받았다.

유소연은 “무엇보다 이 시대 여자골프에서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의 이름을 가진 상을 받아 영광이다”라고 기뻐했다.

그는 또 “메이저대회는 정말 어려워서 운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 상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메이저대회를 잘 다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말로 영광이다”며 “메이저대회에서 좋은 경기를 한다면 언제나 나의 게임이 세계 최고라 느껴진다. 내가 프로골퍼라서 다행이다. 이런 영광을 누리다니 정말 특별하다고 언급했다.

세계랭킹 1위로서 메이저 여왕에 오른 기분은 더욱 특별하다.

유소연은 “여전히 꿈속에 사는 것 같다. 언제나 메이저 챔피언과 세계랭킹 1위를 꿈꿔왔는데 안니카 메이저 어워드까지 받았다. 꿈이라고만 생각해서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현실이 됐다. 꿈인가 생시인가”라며 놀라워했다.

유소연은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본다.

그는 “계속 열심히 하겠다는 동기를 더 많이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유소연의 다음 목표는 시즌 성적을 점수화해 순위를 매기는 ‘레이스 투 CME 글로벌’ 우승으로 “시즌 최종전인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까지 좋은 경기를 이어나가서 레이스 투 CME 글로벌에서 우승하고 싶다”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박성현, 상을 다 가질 듯

LPGA 상금왕·신인왕 선두... 최저타수·올해의 선수도 유력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의 ‘슈퍼루키’ 박성현(24)은 비록 예비양 챔피언십(총상금 365만 달러) 우승 기회를 놓쳤지만, 각종 타이틀 경쟁에서 우위를 더욱 단단히 다졌다.

박성현은 17일(한국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랭의 에비앙 리조트 골프클럽에서 끝난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최종합계 이븐파 21타로 공동 26위를 차지했다.

한때 우승을 바라봤던 박성현으로서는 썩 만족할 만한 성적은 아니다.

이번 대회는 첫날 경기가 폭우로 취소되면서 4라운드도 아닌 3라운드 경기로 치러졌다.

박성현은 첫날 6오버파로 매우 부진했으나, 이 기록은 ‘없던 일’이 됐다. 다음 날 새로 치른 1라운드에서는 8언더파 63타로 반등에 성공하면서 단독 선두에 올랐다. 그러나 이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우승에서 멀어졌다.

그런데도 이 대회로 박성현은 상금왕·신인왕 선두를 지켰다.

이날로 박성현의 시즌 상금은 190만 9667달러가 됐다. 올 시즌 LPGA 투어에서 박성현보다 많은 상금을 거둔 선수는 없다. 2위 유소연(27)은 178만6524달러, 3위 레시 톱슨(미국)은 166만3957달러로 뒤를 이고 있다.

신인왕은 거의 박성현이 확정적이다. 박성현의 신인왕 포인트는 1333점으로, 2위 예인절 인(미국·559점)을 774점이나 앞섰다.

박성현은 지난주까지 평균타수 69.000으로 톱슨(68.877)을 이어 2위에 올라 있었다.

박성현은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타수를 많이 줄이지 못해 평균타수가 69.092로 올랐다. 그런데 톱슨은 이 대회에서 3오버파 216타로 더욱 무너져 평균타수가 69.015로 상승했다. 박성현은 톱슨과의 격차를 0.123타에서 0.077타로 좁히며 ‘초박빙’ 상황을 만들었다.

연합뉴스



올해의 선수 부문에서도 상위 경쟁을 펼치는 박성현은 ‘시즌 4관왕’ 가능성도 엿본다. 현재 올해의 선수 포인트 선두는 유소연(150점)이고, 톱슨(147점)이 그 뒤를 바짝 뒤쫓고 있다. 박성현은 130위로 3위를 달린다.

한 해에 신인왕, 상금왕, 최저타수, 올해의 선수까지 4개 타이틀을 모두 휩쓴 선수는 1978년 낸시 로페스(미국) 이후 없었다.

KIA 팻던·김선빈 ‘8월 이달의 감독상’

KIA 타이거즈 투수 팻던과 내야수 김선빈이 8월 ‘이달의 감독상’ 주인공이 됐다.

팻던과 김선빈은 지난 17일 kt 위즈와의 홈경기에서 구단 후원업체인 Kysco(키스코)가 시상하는 8월 ‘이달의 감독상’에 선정돼 시상식을 가졌다.

외국인 투수 팻던은 8월 한 달간 5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28이닝 동안 20개의 탈삼진을 잡아내며 2승(1패)을 챙겼다.

김선빈은 8월 17경기에서 출전 60타수 25안타(1홈런) 6타점 12득점 타율 0.417의 뛰어난 공적력을 선보였다. 공격은

물론 체력 소모가 큰 유격수를 맡아 내야수비의 안정을 이끌었다.

이날 시상식은 Kysco 김원범 대표가 했다. 상금은 50만원이다.

한편 ‘이달의 감독상’은 선수단의 팀워크 향상과 팬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5시즌부터 시상하고 있으며, 매달 투수·야수 각 1명에게 돌아간다. 의류브랜드인 Kysco가 후원하며, 수상자는 팀을 위해 희생하며 묵묵하게 공헌한 선수 가운데 김기태 감독이 직접 선정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호투 류현진, 기대 반 우려 반

4.2이닝 무실점하다 연속 불넷에 강판... 6승 불발
포스트시즌 선발 경쟁서 확실한 눈도장 못받아

류현진(30·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게 18일 워싱턴 내셔널스전은 단순한 ‘6승 도전’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류현진은 전반기 8경기에서 45이닝 2승 1패 평균자책점 2.60의 성적에 힘입어, ‘지구 최강’으로 불리는 클레이튼 커쇼를 비롯한 화려한 선발진을 자랑하는 다저스 내에서 확실한 입지를 다지지는 못했다.

경기 결과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낳았다.

류현진은 5회를 채우지 못하고 어렵게 물러났다. 그는 4.2이닝 동안 안타 3개를 맞았으나 삼진 5개를 잡아내며 무실점으로 역투했다. 주 무기인 체인지업의 위력에 워싱턴 강타자들도 무기력했다.

다만, 5회에 내준 불넷 2개가 아쉬웠다. 류현진은 2사 후 불넷을 잇달아 내준 뒤 1-0으로 앞선 5회 2사 1·2루에서 강판됐다. 4회까지 공 68개를 던진 류현진은 5회에 30개를 뿌렸다. 류현진으로서는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의 빠른 결단이 아쉽지만, 그동안 투구 수가 많

수공이 가기도 한다. 승리투수 요건을 위한 아웃카운트를 1개 남기고 강판당했다는 점에서 완전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 이는 점이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총평하면 류현진은 이날도 잘 던졌지만, 포스트시즌 선발 경쟁자들을 따돌릴 만큼 압도적이지는 못했다.

그는 이날 마운드에 오르기 전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치열한 ‘5선발’ 경쟁에서 살아남은 듯하던 류현진은 로버츠 감독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모호한 이유로 선발 등판 예정이었던 12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을 건너뛴다.

경기 전 현지에서는 후반기 성적을 토대로 류현진에게 포스트시즌 3선발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커쇼와 다르빗슈 유가 포스트시즌 로테이션에 들어가는 점은 분명하다. 이들을 제외하면 류현진과 리치 힐, 마에다 겐타, 알렉스 우드가 남는다.

류현진의 무실점 투구는 포스트시즌 선발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 줄 수 있지만, 조기 강판은 개운치 못한 뒷맛을 남겼다.

연합뉴스